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비교연구

2020년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심 리 전 공

소 빙 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현주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비교연구

Comparison of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towards Professional Assistance based on Attachment Type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소빙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현주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비교연구

Comparison of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towards Professional Assistance based on Attachment Type

위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심 리 전 공

소 빙 결

소빙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 문 초 록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비교연구

한 성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상 담 심 리 전 공
소 빙 결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 비교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241명 한국 대학생들과 299명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에 따라 심리·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차이와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 경험은 한국 대학생 11.9%, 중국 대학생 11.1% 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적 상담 경험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상담을 받게 된 태도(경로)는 한국은 35.5%가 자발적으로 받는 반면 중국은 28.2%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은 한국과 중국 모두 2위로 나

타나 향후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적에 따라 상담내용을 보면 한국(32.3%)과 중국(30.6%)은 일·공부 문제가 가장 많고, 한국은 정서·감정문제(16.1%), 대인관계(15.3%)순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대인관계(23.4%), 정서·감정문제(12.1%)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자살문제(1.6%)로 도움을 추구하지만, 성문제로 상담을 하지 않고, 중국은 성문제(3.2%)로 도움을 추구하지만 자살문제로는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상담심리에 대한 태도가 양국의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섯 번째는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지만,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는 애착유형과 상담 경험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 경험보다는 애착유형이 도움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 번째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각각 애착유형이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 경험이 조절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에는 상담 경험이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으며, 상담 경험보다는 애착유형에 따라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심리·정서문제에 있어 본인의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4-15]에 나타난 것처럼 양국 모두

친밀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데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상담 경험에 대해 친밀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한국은 평균 3.22점, 중국은 3.47점으로 의존 애착과 불안 애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의존 애착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애착유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비교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애착, 애착유형, 상담, 상담경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가설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관한 고찰	5
1. 전문적 도움추구 이해	5
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6
3. 전문적 도움추구 선행연구	8
제 2 절 애착이론	10
1. 애착	10
2. 성인애착	14
제 3 절 전문적 도움추구와 애착이론의 관계	20
제 4 절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비교에 관한 고찰	22
1. 한국의 문화	22
2. 한국대학의 상담	25
3. 중국의 문화	27
4. 중국대학의 상담	30
제 3 장 연구방법	32
제 1 절 연구 설계	32
1. 연구모형	32
2. 연구방법 및 범위	33

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33
제 4 장 연구결과	35
제 1 절 기초 통계 결과	35
1.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35
2. 상담에 관한 분석결과	37
3. 국적에 따른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평균 분석	40
4.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평균 분석	41
5.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상담 경험 평균 및 t-검정	42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44
1.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의 다중회귀분석	44
2.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각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분석	44
3. 상담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 회귀분석	46
4. 상담경험 조절효과분석	48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제 1 절 요약 및 논의	51
1. 요약 및 논의	51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54
참 고 문 헌	55
부 록	67
ABSTRACT	75

표 목 차

[표 2-1] 전문적 도움추구 선행연구	9
[표 2-2] 개인의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과정	13
[표 3-1] 각 문항 간 신뢰도 값	34
[표 4-1] 국적에 따른 성별 기술 분석 결과	35
[표 4-2] 국적에 따른 학년 및 재학여부 분석결과	36
[표 4-3] 국적에 따른 평균 연령	37
[표 4-4] 국적에 따른 성별 연령	37
[표 4-5] 국적에 따른 상담 경험 분석	38
[표 4-6] 상담경험 대학생의 국적과 성별 분석	38
[표 4-7] 상담경험에 대한 경로	39
[표 4-8] 국적에 따른 상담내용의 복수응답 결과	40
[표 4-9] 국적에 따른 평균 분석 및 t-검정	41
[표 4-10]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평균 및 t-검정	42
[표 4-11] 상담 경험에 따른 애착유형의 평균 및 t-검정	43
[표 4-12] 애착유형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다중회귀 분석 결과	44
[표 4-13]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간의 각 애착유형의 다중회귀분석	45
[표 4-1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불안애착유형	46
[표 4-15]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친밀애착유형 간 다중회귀분석	46
[표 4-16] 상담경험자 중심의 국적과 애착유형의 t-검정	47
[표 4-17] 상담경험자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47
[표 4-18]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 간의 영향 관계 조절효과	48
[표 4-19]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 간의 영향 관계 조절효과	49
[표 4-20] 가설 채택 여부	50

그림 목 차

[그림 2-1] 내적작동모델	14
[그림 2-2] 성인애착 유형	17
[그림 3-1] 연구모형	3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상황의 복잡성과 경쟁의 치열성, 그리고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은 인간 마음에 압박감을 주며 또한 여유를 잃게 하고, 소외, 외로움,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인 만 20세에서 만 40세는 성인 전기로, 에릭슨(1963)은 친밀감 대 고립으로 표현하면서, 이 시기에 인간은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친구관계, 부부관계, 전우애 등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며, 만일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친구, 애인, 배우자 등을 얻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만 20대에는 부모로부터 독립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직업선택,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하는 과업을 갖기도 한다.

만 20대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신감 하락 및 사회적 고립감 등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생과정에 겪게 되는 다양한 과업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한다. 특히 20대에 겪게 되는 심리·정서 문제 중 대학 생활의 부적응, 학업의 좌절감, 대인관계의 갈등, 진로문제, 이성문제 등이 20대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정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학생들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어떤 학생들은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생한 문제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최후의 선택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게 된다(Hinson & Swanson, 1993; Lin, 2002). 즉 많은 심리학자들의(Goodman, Sewell, etc.)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때,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

게 털어놓는 것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등 전문 상담가 또는 상담기관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Fischer & Turner(1970)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받는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태도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란 전문적 도움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사회사업가, 정신과 의료진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를 말한다(소아, 2014).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개인의 애착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대학생은 성인으로, 성인 애착유형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데 발생하는 개인차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Lopez, Melendez, Saucer, Berger& Wyssmann, 1998). Lopez & Brennan(2000)은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 틀로서 애착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애착이론은 대인관계 문제와 환경 전반에 관련한 문제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Mallinckrodt, 2000).

본 연구는 성인 초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찾아 도움을 추구할 것 인지에 대한 태도연구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담기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과거 전문상담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문상담기관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많은 언론에서 심리·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많은 심리·정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애착유형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유형은 내적작동모델로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향, 이슈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등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선택할 것 인지는 본인의 애착유형이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내적작동모델은 자신의 방식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틀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내적으로 작동하는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착유형과 관계없이 전문상담기관 또는 전문적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즉 애착유형 중 회피 애착 또는 불안정한 애착유형이라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서 전문상담기관 또는 전문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유형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상담경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상담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두 나라 간의 대학생들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애착유형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나라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문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학생상담센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가 개방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은 대부분의 대학보다는 일부 대학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기에 전문적 도움추구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양국의 대학생이 겪는 심리·정서 문제가 그들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Hinson & Swanson(1993), Lin(2002)이 주장한 것처럼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전문상담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애착유형이 심리·정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상담경험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국적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국적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성별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상담경험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 각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9. 상담경험자를 중심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10-1. 의존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10-2. 불안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10-3. 친밀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관한 고찰

1. 전문적 도움추구 이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인적인 위기나 그에 따르는 계속되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는 동안에 개인이 전문적 도움을 찾거나 참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Fisher & Turner, 1970; 나희영, 2017에서 재인용). 기존의 많은 연구¹⁾에서는 상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았다.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help seeking intent)란,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상담이나 정신치료와 같은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의도는 정해진 환경에서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외현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Ajzen & Fishbein, 1980), 의도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직접적으로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도움추구행동(help seeking behavior)은 어떠한 문제 또는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해, 치료, 충고,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소 아, 2014). 전문적 도움추구행동(professional help seeking behavior)은 앞에서 언급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help seeking intent)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러한 도움을 실제 요청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 도움 요청 대상은 심리치료 및 상담가, 사회사업가, 정신과 의료진 등이 된다.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피험자의 태도를 예측하는 상담과 전문적인 도움 추구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

1) Fisher & Turner, 1970;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비교적 안정된 평가적인 성향(Gleitman, 1999)이다.

현재까지 관련하여 연구된 심리학적 변수 중에서 전문적 도움추구로 의한 변인 연구의 예는 아래와 같다. 타인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낄 때 상담에 찾아오는 경향성이 있고(Goodman, Sewell, & Jampol, 1984),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질수록(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또한 상담을 찾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고 느낄 때 상담에 찾아온다고 한다(Mechanic, 1975).

결국, 삶의 맥락에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견딜힘이 약해지면 전문 상담가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 과정의 단계 모형에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 지각, 도움 추구의 결정, 전략적 수행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Gross & McMullen, 1982; 김미경, 1998에서 재인용). 가장 먼저는 문제를 지각하는 단계로 사람들은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과거 경험을 통해 그것을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각한다. 그 다음은 도움 추구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치뤄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는 전략수행단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추구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한 개인이 문제에 직면하여 위의 3단계를 거치며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기 까지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양대희, 2010).

결국,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3단계 외에 개인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비용, 시간, 상담에 대한 신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는 Fischer와 Turner(1970)가 심리치료에 대한 대인관계 개방성(interpersonal openness), 도움 필요 인식(Recognition of need for psychotherapeutic help), 심리치료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in mental health practitioner), 그리고 낙인 내성(stigma tolerance) 4가지 요인을 연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심리치료를 받는 데에 거부감이 없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으며 그런 상태가 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기를 꺼려하며 정신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전문가에 대한 기대나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낙인에 대한 내성 점수로, Phillips(1963)가 연구한 전문적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낙인이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부터 사회적 낙인감(perceived public stigma)이 자기낙인(self-stigma)에 영향을 미쳐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Vogel, Wade, Wester, Larson, & Hackler, 2007)까지 낙인이 도움추구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Fischer 와 Turner(1970)에서는 낙인에 있어 내성 점수가 낮은 경우 심리치료 전문가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에 내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점수이다. 타인에 대한 개방성 점수가 높은 피험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운 점을 공개할 마음이 더 컸다.

네 번째 요인은 심리치료에 대한 신뢰도로 심리 상담가 혹은 전문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의 피험자들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심리치료 방법이나 치료기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운 경우 방치하거나 혼자 해결하기 보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 '심리 치료에 대한 도움 필요 인식'과 네 번째 '전문가나 심리치료자에 대한 신뢰도'가 도움추구태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Fischer & Turner, 1970).

추후 연구로 Fischer와 Farina(1995)는 기존의 29문항을 10문항으로 단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단축형(ATSPPH-SF)을 개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유성경(1998)이 기존 29문항을 번역하고 그것을 신연희(2005)가 다시 보완한 것을 단축형의 형식으로 종종 사용되었다.

3. 전문적 도움추구 선행연구

미국에서는 1960년부터 도움추구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Cramer, 1999). 이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자일수록(Fisher & Turner, 1970; Verdorff, 198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Tessier & Schwartz, 1972), 교육수준 정도가 높을수록(Leaf & Bruce, 1987)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유성경, 2002 재인용).

일반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움추구 행동을 기피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료에 대한 두려움(Amato & Bradshaw, 1985; Kushner & Sher, 1989; Pipes, Schwarz, & Crouch, 1985), 상담 비용(Vogel & Wester, 2003),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Deane & Chamberlain, 1994),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Komiya et al., 2000), 등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변인들이다.

또는 한 사람이 심리적 어려움에 맞닥트렸을 때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장영임, 1999; Rickwood &

Braithwaite, 1994). 한 사람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더 심각하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고(Robbins & Greenley, 1983; 장영임, 1999), 심리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Sewell, & Jampol, 1984; Cramer, 1999).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호소는 도움추구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Cramer, 1999).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전문적 도움추구 선행연구

저자	년도	내용	
		원인	결과
Fisher & Turner	1970	여자일수록	전문적 도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ssier & Schwarts	1972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Leaf & Bruce	1987	교육수준 정도가 높을수록	
Amato & Bradshaw	1985	치료에 대한 두려울수록	전문적 도움을 행동으로 나타났
Kushner & Sher	1989		
Pipes , Schwarz, & Crouch	1985		
Vogel & Wester	2003	상담 비용이 많을수록	
Cepeda-Benito & Short	1998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회피할수록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을 피할수록	
Komiya et al.,	2000		
Deane & Chamberlain	1994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타인으로 부정적으로 판단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마음	
Rickwood & Braithwaite	1994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각할수록	
Robbins & Greenley	1983	한 사람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더 심각하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제 2 절 애착이론

1. 애착

Bowlby(1969)는 애착에 대한 “생애초기 한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의 민감하고 친밀한 보살핌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후 성격 발달과 사회적 관계 발달에 대한 성망을 제공해 주었다. (Collins & Read, 1990).

다시 말해 어린 시절 부모와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를 애착손상(Attachment injury)이라 하며, 애착손상은 술, 담배, 중독, 폭력, 이혼, 불안, 우울증, 집중력 저하, 학습곤란 등 성격장애로 나타난다고 한다(유중근, 2018). 즉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부적응의 현상은 애착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Bowlby(1973)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개인이 속한 사회라는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각자에게 중요한 타인들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발달하는 내적 표상을 설명하기 위해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내적 작동모델은 생애 초기 영아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영아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이런 행동들로부터 영아들이 받는 피드백 등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게 되며(Bretherton, et al., 1990), 근접성과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애착욕구를 통제하고, 충족시키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지각, 반응, 행동 등을 이끄는 기능을 하게 된다(Bretherton, 1985; Sroufe & Waters, 1977). 자신과 중요한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되는 내적 작동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표상과 다른 사람들을 반응적이고 신뢰로우며 접근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타인 표상이다(Bowlby, 1979).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1978)은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를 개발하였다. ‘낯선 상황 절차’는 1세의 유아와

그 유아의 어머니가 놀이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실험자도 함께 들어간다. 그 안에서 20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실험이 이루어진다. 유아는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며 낮설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면 엄마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자유롭게 탐험하거나 돌아다닌다. 그런데 공포 혹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느끼거나 노출되면 바로 중심점인 엄마가 있는 곳으로 피하여 보호받으려고 한다. Ainsworth(1963)는 아이가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혹은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일 때 그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애착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이가 엄마가 있는 곳을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고 그 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낯선 곳을 탐험하고 돌아다니는 행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엄마의 양육방식의 차이, 즉 양육의 질로 판단하였다(David J. Wallin, 2011). ‘낯선 상황’ 절차에서 보여준 다양한 패턴은 엄마와 유아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 방식과 애착관계가 반영을 알 수 있다. 애착에 대한 패턴은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안정애착’,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에는 회피유형과 양가유형이 있는데, 즉 불안정-회피유형(insecure-avoidant), 불안정-양가유형(insecure-ambivalent)으로 나뉜다. 따라서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정형 애착은 엄마와 불안한 상황에서는 유아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였으며, 엄마와 같이 안정감을 느낄 때는 자유롭게 탐험을 할 수 있고, 유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를 상대방이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함께 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불안정-회피유형 애착의 경우 엄마의 부재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직접 경험해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엄마와의 감정 교류를 억제하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며 엄마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불안정-양가유형 애착은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다시 만났을 때 안으려하면 밀어내었고 엄마가 옆에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엄마를 계속 찾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엄마는 언어적, 신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당황해 하였다.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1969)에 의하면 초기 양육자와의 안전한 경험을 찾고,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타고난 기질은 본성 그리고 양육자가 보여준 반응성의 질과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기질은 성격과 잠재적인 적응 혹은 부적응의 발달경로를 형성하는 인지적, 정서적, 관계 행동적 과정들에 관한 단계들을 형성한다고 하였다(Lopez & Brennan, 2000). Ainsworth(1989) 또한 발달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성(sensitive responsiveness)이라고 하였다. 민감한 반응성을 양육자가 아기의 신호를 주목하고, 그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Marrone, 2005). 애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민감성(sensitivity) 혹은 반응성(responsiveness)의 일반적인 개념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말하는 자율성, 효능감, 관계성과 같은 심리적 욕구들과 관련이 있다(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정서 조절 과정 중에서 유아는 자신의 정서가 그것을 반영하는 양육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유아기에 3 가지의 유용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1)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주체성(agency)이나 자기 주도성(self-initiative)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즉 주체성 또는 주도성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3) 서서히 특정한 정서 들이 특정한 반응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들을 서로 구별하고 마침내는 명명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Fonagy et al., 2002).

그러나 부모로부터 안락감과 안정감을 받으려고 하는 영아의 요구를 양육자가 계속 거부하면, 영아는 부모로부터 안정감과 안락감을 받은 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여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감도 없어진다. 이는 자신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거나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존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는 인간으로 발달시킨다. 결국, 양육자가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로 영아를 대할 때 영아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나아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 불신하여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세상을 통제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

고 단정 짓는 모델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작동모델은 기억과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도식으로 구성되는데(Fiske & Taylor, 1984; Main, Kaplan & Cassidy, 1985), 단순한 인지적 도식과는 달리 작동모델은 기술적인 인지적 구성요인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방어적인 인지적 요인까지도 포함하므로(Bretherton, 1985),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은 꽤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

표 2-2 개인의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과정

애착대상 예측조건	자기대상 예측조건
애착대상이 개인의 보호와 지지를 위한 요구에 대해 반응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 조건	내 존재가 타인이 사랑할 만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예측 조건

출처: 유중근, 애착이론 BASIC,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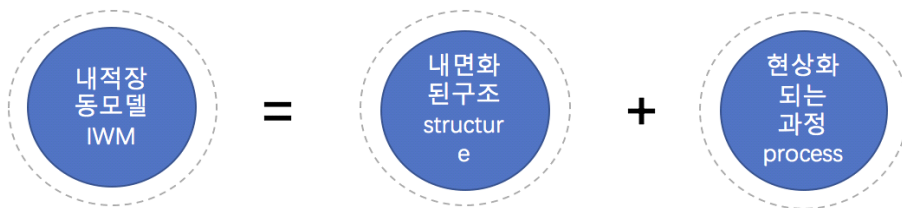
내적 모델은 생애 초기에 많은 변화가 있는 환경을 접하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작동된다. 이는 점차 애착대상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이를 통해 내적 모델이 구성되고 강화된다. 이는 점차 변화에 저항하게 만든다(Egeland & Farber, 1984; Thompson, Lamb, & Estes, 1982). 개인이 아동기에 형성한 자아 및 애착대상에 대한 표상모델은 비교적 변화되지 않으며, 이는 성인기를 통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개 개인은 자신과 관계를 형성하는 유대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배우자 혹은 자녀)을 기존의 모델로서 동화시킨다. 그런데 그렇게 동화시켜 만든 모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유사하게 타인들에게도 자신의 자아-모델에 적절할 것 같은 방식으로 타인들이 자신을 다루고, 지각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또한 그와 상반되는 증거들이 생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Bowlby, 1979).

내적작동모델들은 애착관계를 통해 독특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구조의 성격에 따라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은 서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가질지, 자신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계에서 무엇을 기억으로 남길지 등을 작동모델들의 구조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 인지와는 상관없이) 결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내적작동모델은 애착관계를 통해 내면화된 구조(structure)와 작동 모델들의 규칙에 따라 현상화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의 숨겨진 구조와 과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성인애착’이다.

그림 2-1 내적작동모델



출처: 유중근, 애착이론 BASIC, p.107

2. 성인애착

1) 성인애착의 개념

성인애착에 관한 연구는 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이 유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로 시작되었다(Ainsworth, 1989;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성인애착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Berman과 Spering(1994)에서는 성인애착을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고 각 사람

이 자신과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본능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였다. 이는 아동기 애착과 달리 성인애착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슬픔, 이별 등이 주는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Bowlby, 1988).

Ainsworth의 연구를 시작으로 그 뒤에 이 연구를 따르는 많은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유아의 애착 패턴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은 내적 작동 모델에 관한 서로 다른 가정을 근거로 하여 면접 측정법과 자기보고 측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Lopez, 2008). Main과 Goldwyn(1985)에서는 성인애착 인터뷰(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를 바탕으로 내적인 세계인 ‘어머니’와 작동 모델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성인애착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 부모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독립심을 요구하여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경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녀의 요구나 요청을 보호한 경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뀐 경우에 대한 질문, 마음에 상처를 받을만한 사건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자들은 애착에 대하여 성인의 심리 상태를 ‘안정유형(secure)’, ‘회피유형(dismising)’, ‘집착유형(preoccupied)’, ‘미해결유형(unresolved)’ 총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후에 Main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비슷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성인 애착의 면접 실험에서 드러난 유형이 정확도 75%로 유아가 낯선 상황을 대하는 유형이 안정적인가 불안 정적인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실시한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한 예측도 그에 못지 않게 정확했다(Van IJzendoorn, 1995). 또한 Hamilton(1995)에서는 애착유형에 포함되었던 유아가 17세가 되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인 애착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애착유형을 나누는 종단연구를 사용하였다. 피험자 중 77%가 영아 때 나온 애착유형과 일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애착의 특성이 세대 간에 전달된다고 보지만 성인기 애착과 유아기 애착의 차이점도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에는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양육자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성인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Berman, Marcus, & Berman, 1994). 곧 영아기와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성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성과의 연애관계에서 이런 상호성이 더욱 발전한다는 것이다. 둘째, 애착대상 이 부모에서 친구, 연인, 배우자로 전환되어 가며 내적 작동모델, 환경적 고려, 유전적 행동체계, 그리고 부모와의 현재 관계를 포함 한다(Lankler, 2005).

다른 연구(Egeland, Jacobvitz & Sroufe, 1988)에서는 안정하게 애착된 아동은 다른 어른들이나 또래들을 잘 사귀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의 정서 상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줄 알며, 불안정 애착아동은 사교성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며, 또래 관계가 나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세 때 안정애착으로 나뉘었던 아동은 5세, 9세, 14세가 되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며 1세 때 회피유형으로 나뉘었던 아동의 경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양가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은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쉽게 당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후 1년간 형성되는 애착유형은 이후에도 아동들의 행동, 사회적 적응 및 자전적 서술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최소한 10년 동안 지속된다(Grossmans & Grossman, 1991). 이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후 형성된 이 애착은 아동의 전체 인생에서 형성되는 성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근본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의 형태와 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2) 성인애착의 유형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 (1973)의 개인내적작동 모델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을 규정하여 성인 애착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기 위해 성인애착 관계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개발하였다. Bartholomew는 Ainsworth의 세 가지 범주 모델에서는 회피애착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안정-회피 애착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는데 ‘거부형-회피’와 ‘두려움유형-회피’로 다시 나눈 것이다. 결과적으로 4범주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는 자기 및 타인 표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차원을 조합하여,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이 모두 긍정적인 유형을 안정형(secure), 모두 부정적인 유형을 두려움유형(fearful), 자기표상은 긍정적이나 타인 표상이 부정적인 경우를 거부형(dismissing), 자기표상은 부정적이나 타인표상 이 긍정적인 경우를 몰두유형(preoccupied)으로 나누었다.

그림 2-2 성인애착 유형

		자기표상 (Model of self):	
		긍정	부정
타인 표상(Model of other):	긍정	안전형 (secure) 친밀성과 자율성어 편안함을 느낌	몰입형 (preoccupied) 관계에 몰두되어 있음
	부정	거부형 (dismissing) 친밀성과 거부함 반의존적	두려움형 (fearful) 친밀성과 두려워함 사회적으로 회피

출처: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by K. Bartholomew & L. M. Horowitz, 199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안전애착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외톨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음은 거

부애착유형으로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것이 편하다, 내가 독립적이고 자족적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나에게서 매우 중요하다.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몰입애착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완전히 친해지고 싶다. 근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친밀해지려 하지 않는 것 걱정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한 느낌이 있다. 두려움애착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남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너무 친해지면 내가 상처를 입게 될까 봐 걱정된다(안하얀, 2009).

Hazan과 Shaver(1987)에서는 아동기 애착 시기를 지나 청소년과 성인 때에 연인 관계 (romantic relationship)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단일 문항의 자기보고 측정도구이다. 이는 친밀 관계 내에서 성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의 개인차를 개념화 한 틀로서 Ainsworth 등(1978)의 애착 분류 범주를 성인의 연인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Fraley & Waller, 1998). 연인들 간에 형성되는 유대관계가 영유아와 부모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관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는 성인의 애정적 관계를 애착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확인하여 애착이론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황창순, 2006). 그러나 측정법이 너무 단순하여 심리측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문형춘, 2007), 후속연구에서 성인애착 3범주 분류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Collins & Read, 1990). 이런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문항을 1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개정된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세 가지 요인을 산출하였는데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친밀성과 편안함 즉, ‘친밀’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는 ‘의존’이다. 마지막으로 떨어지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는 ‘불안’이다. 이

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애착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개념화하여 측정하면서 정확도를 높였다.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친밀, 의존, 불안의 세 가지 성인애착 유형으로 나누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분석결과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한 세 개의 불연속적인 애착양식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으나 세 가지 애착양상의 기초가 되는 의존, 친밀, 불안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이것은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황경옥, 2001). 각각의 유형에서 의존 하위척도는 자신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이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정도를 묻는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친밀 하위척도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접근하기 쉬운지, 친밀함의 정도에서 어느정도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불안 하위척도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버려지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3 절 전문적 도움추구와 애착이론의 관계

최근 전문적 도움추구의 태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애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Bowlby(1982)에 의하면 애착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내적 모델이 형성되는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 즉,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연구가 보고되었다(Holt, 2014).

Mikulincer와 Florian, Weller(1993)에 따르면 안정애착은 외상적 사건을 대처할 때 비교적 사회적지지 추구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불안애착은 정서 중심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회피애착의 경우 더 높은 신체화, 외상 관련 회피, 거리두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ikulincer(1995)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평가와 대처방식의 차이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양가적인 사람은 안정애착과 비교하여, 감정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적인 사람은 거리두기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이 적절한 도움 추구를 방해하고 도움이 제공될 때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용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의 경우 적절한 도움 추구를 막거나, 도움이 제공될 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용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안차원이 높은 경우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통한 안도감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승인에 집착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이를 강화를 받고자 한다(김병직, 2009; Mikulincer et al., 2003). 반면에 회피차원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의존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회피차원이 높은 경우는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통해 성취를 얻고자 한다(김병직, 2009;

Mikulincer et al., 2003).

Sarason(1990)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라 주장하였다. 불안애착이 강한 사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감(distress)을 지나치게 과장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낸다.(Cassidy 1994, 2000; Kobak & Sceery, 1988; 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Pietromonaco & Barrett, 2000, Shaver & Mikulincer, 2002). 반면에 회피애착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타인의 중요성을 절하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 때문이다(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Lopez & Brennan, 2000; Pietromonaco & Barrett, 2000, Shaver & Mikulincer, 2002, Cassidy, 1994, 2000).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긍정적이고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Jampol & Goodman, Sewell, 1984; Rickwood & Braithwaite, 1994; Crammer, 1999; 이동혁 & 유성경 2003 재인용). 한 사람이 심리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장영임, 1999; Rickwood & Braithwaite, 1994). 자신의 증상에 대해 심각하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고(Robbins & Greenley, 1983; 장영임, 1999), 심리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Sewell, & Jampol, 1984; Cramer, 1999).

제 4 절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비교에 관한 고찰

한국과 중국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중국 각 나라의 사회 문화와 조직문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화의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Ralston, Holt & Terpstra, 1997). 따라서 한 문화권에 소속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행동이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가치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한국의 문화

한국문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 사고, 행동 특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영입된 새로운 사상으로 형성된 것이다(Wu Pantong, Liu Haijian, 2005).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고 1392년부터 조선에 유교가 전파되면서 유교 사상이 한국인 생활을 지배하였다. 또한 근대 역사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풍습, 일본어와 문자를 습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선진적인 생산 경영이념을 같이 영입하였다. 따라서 일본 문화에서의 집단주의 문화, 팀워크 정신, 상사와 부하 간의 등급 관념도 등 한국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충성심을 강조하게 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는 한국의 개화를 추진하였다.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 평등사상이 널리 퍼졌으며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힘과 신념이 되었다(罗锋, 1998).

한국 학자 유민봉, 심형인(2013)은 문화합의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사회 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였고 한국문화를 "공적 자아인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중시"라는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정훈(2002)에서는 한 조직에서 영향을 미치는 윤리의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문화 요인과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감정적 요인으로 나뉘었다. 전통적 요인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 일정 부분 공통점을 지니는 요인이며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유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생활 규범, 정치 이념, 혹은 철학 사상으로 자리 잡혔다. 특히 유교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교 문화와 불교, 도교의 가치관도 포함된다. 유교적 가치관은 Bond(1987)의 중국인 가치관 연구 결과에 의해 노동역동성(work dynamics), 사회통합(integration), 인(human heartedness), 도덕적 실천(moral discipline)과 효도, 겸손 등으로 볼 수 있다(Bond 1987). 한국인의 특유 심리적 요인은 기질적 역동성(temporal dynamics), 응석의 심리(indulgence mentality)와 層階的疏遠性(hierarchical alienation)로 구성된다(이정훈, 2002). 기질적 역동성은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고(이정훈, 1996) 높은 성취동기,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정신 등으로 표현된다. 응석의 심리란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태도라고 정의된다. 이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관계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層階的疏遠性은 한국인이 모든 사물과 사람을 등급화 시키는 계층적 마음가짐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와 방어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밝혔다(이정훈, 2002).

한국의 조직문화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미국에서 돌아온 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다. 산업계는 보다 늦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1986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도하에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운동을 펼쳤고 1987년에 300여 건의 노동분쟁이 일어났다. 그 이후 한국 산업계가 조직문화를 중요시하기 시작했다(Wu Pantong, Liu Haijian, 2005).

한국인은 집단주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독특한 정서와 표현방식을 체득해왔다. 한국인의 대표적 심리 정서적 특성은 ‘한’, ‘정’, ‘체면’, ‘서열의식’, ‘집단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恨)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심층적인 한국인의 정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한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가만히 멎어 있다는 간(艮)이 어우러진 문자로서 즉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은 욕구와 의지의 좌절과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얹힌 복합적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이다. 한국에서 인간관계의 감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가 정이며 이러한 정은 가족관계에서도 그 특유의 긴밀성을 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따라서 정은 한국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의 속성은 '따스하다, 잔잔하다, 계산적이지 않다.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쉽게 스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은 이성과 합리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체면(體面)이라는 어휘의 한자를 풀어보면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이다. 즉 체면이란 남을 대하기에 몇몇한 도리나 얼굴을 의미한다. 여기서 "얼굴의 의미는 첫째, 내적 자기 즉 내적 품성의 외적 표현인 동시에 외적 상징이며 둘째, 남이 볼 수 있는 밖의 면이라는 점에서 보이는 '바깥 나'이다."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열의식은 집단주의 문화 안의 가부장제도의 결과물이다. 서열의식은 집단의 운영체계에 녹여들이기 쉽지만 개개인을 인격적인 동등한 위치로 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을 갖는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동등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고 위아래의 개념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반드시 상하관계와 종속적인 관계로 사람을 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사회에서 집단의식의 시작점은 가족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의 집단의식의 근본이며 유교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가족 공동체 의식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도 또 하나의 가족 집단으로 여겨진다. 가족 구성원들은 개인으로서의 가치보다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더 추구한다. 즉 개인이 모여 이룬 전체에 더 가치를 두며 그것이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개인은 그 통합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인정받는다. 개인의 목표보다도 전체의 목표를 더 중요시하며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자 한다.

2. 한국대학의 상담

상담이 한국에 들어온 후 반세기란 시간이 흘렀다. 독립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도입과 혼란의 시기이다.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3단계 즉, 1950년에 1960년대 후반까지 개념의 모색기,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전문성 확립에의 노력기,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담의 확산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이장호, 2005). 현재는 전문성의 명실상부한 확립기로 각종 상담소 및 심리치료 클리닉을 개설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담관련 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심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상담기관은 1962년 서울대학교의 ‘학생지도연구소’이다. 이후 1969년 대통령령 제 4006호로 강제되어 각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지도연구소가 설치되고 운영되었으며(김명훈, 정연운, 1992), 점차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연구소’의 형태로 많은 대학교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전담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은 거의 모든 대학교에 학생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상담기관 설치에 관한 교육법령이 바뀌어 학교장(총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 상담 센터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생활연구소는 대체로 총·학장의 직속기구로 되어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설치령의 취지와 다르게 학생처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김명훈 & 정연운, 1992). 황응연과 이필호(1981)에 따르면 총학장 직속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상담연구소가 81.7%에 이르며 학생처 산하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17.4%를 차지하였다. 학생처 산하기관에 소속된 학생상담 연구소는 학생처장 혹은 높은 직위에서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 차지한다고 하였다.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협의회(CCUS)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전국 200~230여개 대학에 교내 학생생활연구소 혹은 학생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학생상담센터, 학생생활상담실, 학생생활연구소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역할은 동일하다고 보여 진다(강훈구, 2013). 일반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운영된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면 전문가와 1:1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 여러 학생들이 함께 상담하는 집단상담, 학생의 심리를 검사하는 심리검사, 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개인상담의 경우 일회적인 상담이 아니라 1회 50분 정도의 시간으로 꾸준히 정기적인 시간에 만나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상담하게 된다.

또한,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특성, 적성 및 진로 탐색, 잠재력, 학습유형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검사를 통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기성찰의 장을 마련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개인의 성숙을 돕는다(김옥진, 김홍순, 2006). MMPI, MBTI, SCT, Holland 우울진단검사, U&I 학습유형검사는 대학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검사의 종류이다. 먼저 MMPI(다면적 인성검사)는 심리적 상태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SCT(문장검사)는 성격 검사에 활용되어 사고 진단과 정서진단의 도구로 사용된다. MBTI(성격유형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olland(적성탐색검사)는 학생들의 학습유형을 분석하고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이용도 면에서 상담소 활동이나 홍보적인 면에서 직접 상담과 검사까지 실시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 상담센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센터의 다양한 워크샵과 특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상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상담 및 게시판 온라인까지 개설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끌어내는 실정이며 낮은 활용률은 학교들의 홈페이지는 이용이 중단 되게 보이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2005)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2005)에 의하면 202개교 4년제 대학 중에서 175개교가, 155개교 전문대학 중에서 83개교가 학생들이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86%의 4년제 대학, 53%의 전문대학은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상담실, 학생상담센터, 등의 명칭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및 상담 등의 전문적 심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연령대의 집단보다 대학생들이 도움추구 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장호(2005)는 아직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우에 전문적 상담교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비하면 대학생들의 도움추구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어느 집단 보다 서구문화를 내면화한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의 집단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비용도 비교적 다른 인구 층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Atkinson, Wampold, Lowe, Ahn, 1998). 이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개인 상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월등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담실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박경애 & 조현주, 2007).

3. 중국의 문화

费孝通(1985)가 <향토중국>에서는 중국 문화를 사람과 사람 간에 확실한 계급 차이가 있는 문화라고 한다. 서양 사회는 잘 분리된 장각처럼 소속이 있는 단체로 구성된다. 반면에 중국 사회는 물위에 퍼져가는 물결처럼 사람마다 개인의 사회적 영향권이 있고 그 영향권이 중심이다(LIAO Junfeng, 2014). 费孝通(1985)에 따르면 유교문화의 오륜 사상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영향 하에 중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혹은 친연, 그냥 아는 지인, 혹은 낯선 사람까지 모든 사람 사이에는 관계의 거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가 가까운지 깊은지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윤리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인은 조화를 추구한다. 중국인은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마음속의 평화, 다인과 자연 간의 원만한 관계를 추구한다(杨国枢, 2003). ‘천시지리인화’(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 만 같지 않고, 땅의 이득은 사람들의 인화만 못한다)라는 말처럼, 중국인들은 사람의 인화를 성공과 실패의 관건으로 본다. 여기서 "인화"는 사람들이 일심동체, 단결의 뜻이다(Wang baoguo, 2011).

체면은 또한 중국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金耀基, 1988; 黄光国, 1987). 중국문화에서 체면을 중요시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스스로의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타인의 체면을 중요시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金耀基, 1988). 개인이 타인에게서 받은 사회적 존엄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대외 이미지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周美伶 & 何友晖, 2005).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인정’이다. 인정은 인간의 감정이며 사회적 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다(黄光国, 1987). 또한 "인정"은 하나의 세상 물정으로 인정을 잘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활하여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인정"은 중국인의 사회교환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답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거나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인정"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국인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것으로 사회적 인간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체계를 응집시킨다(金耀基, 1980)

서양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전통문화의 영향 하에서 중국인들은 심사숙고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게 되었고 비교적 결과를 더 많이 생각한다.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조건 아래에서 투쟁하는 정신을 찬양하고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평균주의 사상을 형성시켰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인의 생각에 깊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튀어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중간에 있는 것을 더 원한다.

중국 문화의 특성을 총합해 보면 조화를 추구하고, 체면과 정을 강조하며 집단주의와 등급 사상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모험과 변화를 싫어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들은 현재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보다 과거를 더 중시하며 과거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에 대한 전반적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이정언, 2003). 첫째, 가치관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둘째, 개개인은 서로 다른 환경과 각자가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타인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물론 모든 개인에게 가치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치관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르다. 넷째, 가치관은 개개인의 욕구나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다. 가치관은 문화를 형성하는 근원적 뿌리이며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두고 인간 집단 속에서 발전되고 형성되어 왔다.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근원을 알아내는 일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92년 중국은 한국과 수교한 후 중국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문화에 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시작하였는데 90년대 중반 비교문화 이론이 중국에 들어와 학술논문이나 교재로 사용됐다. 2000년 이후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문화교류를 통한 비교 연구가 빈번해지면서 중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중국과 한국 문화의 공통점은 하나의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집권적이고 부지런하다 등 특징이 있다. 다른 점은 한국이 정과 서열을 더 중요시하고 권위주의 색깔이 더 강한 반면 중국 문화에서는 중용이 드러나고 있다.

4. 중국대학의 상담

중국에서 상담이 처음 생겨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대학 보도원이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사회적, 개인적, 직업적 조력을 전적으로 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상담이 처음 시작된 것은 임상분야에서 시작이다. 임상분야의 전문가들은 1980년대 상담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정신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대학에서 심리학자와 사상정치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상정치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을 도입하였다(李鴻義 & 李堅評, 2001)

2001년에 중국의 대학에서 운영되는 대학생 대상 상담기관이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단지 지역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북경시의 경우 67개의 대학 중 28개의 대학이 심리자문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7%가 학생처에, 17.9%는 덕육강좌(德育課部) 혹은 인문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비율이 7.1%였고, 학교 소속 병원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3.6%였으며, 나머지 소속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3.6%였다(中國教育報, 2001.9.7.). 북경시가 중국에서 매우 발전된 도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기타 성에 소속된 대학에서는 이러한 상담 기관보다 더 열악할 것이며 대학에서 관리하는 상담기관의 비율이나 그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베이징 대학생 심리적 소양교육 연구팀에서 28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7%가 학생부에 상담센터를 설치되어있고 17.9%가 사회과학부 혹은 사상품격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7.1%가 심리교육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7.1%는 학교에 직속되어 있으며 3.6%는 교의 관할이며 나머지 3.6%는 불투명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朱穎婷, 2014). 중국의 대학교의 상담센터는 그 명칭이 여러 가지고 사용된다. 예를 들면 ‘대학생 심리건강교육중심’ ‘대학생심리중심’ ‘대학생심리중심’ ‘대학생심리활동중심’ 등 이다. 그들의 예속 관계는 통일화 되어있지 않다.

예속관계가 불투명한 탓에 상담센터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 통일적으로 관

리하기 어렵다. 또한, 심리상담 직원들의 대우 및 직명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 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속관계가 불투명한 탓으로 직원이 일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당직제도랑 휴무제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잡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심리상담 기관의 운영 상황은 매우 불균형하다. 비교적 발전된 지역인 동부연해지대의 상담센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반면 내륙지방의 심리상담은 설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이다.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일부 행정구역은 발전이 빠르고 일부는 느린 상태이다. 이것은 지방대학교에 따라 상담센터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 3 장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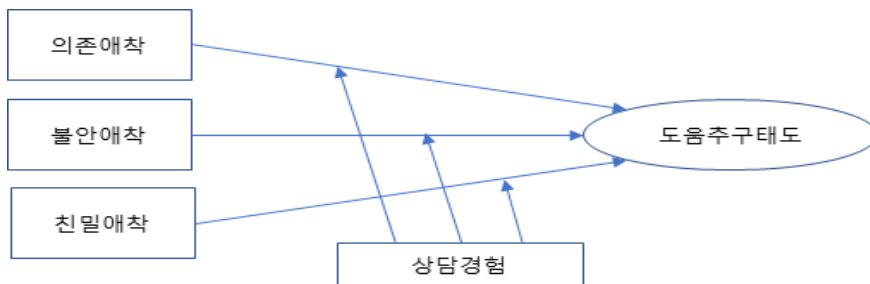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²⁾에 대한 연구로서, 상담경험이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애착유형은 의존, 불안, 친밀애착에 따라 종속변수인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상담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상담경험은 독립변수인 애착유형과 종속변수인 도움추구태도에 개입하여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조절 효과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개입하는 상담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세웠다.

독립변수는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착이며, 조절변수는 상담경험, 종속변수는 도움추구태도이다.

그림 3-1 연구모형



도움추구태도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이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

2) 도움추구는 전문적 도움추구를 의미하며, 맥락에 따라 전문적도움추구 또는 도움추구로 기술한다.

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심리 내적인 힘에 의해 작용되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애착유형보다는 사전 상담경험에 따라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범위는 한국은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고, 표본선정은 서울에 소재한 10곳 대학으로 조사방법은 대학교 주변의 카페에 있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응답한 한국 대학생은 241명이다. 중국 대학생은 원웬썩(问卷星)이라는 설문 조사 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쿼알 코드로 굼어서 친구 공유로 연결해서 참여하도록 했다. 설문 참여는 중국 대학생만 응답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참여한 대학생은 299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540부이며 전체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어 540부의 모든 자료가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애착유형 도구는 성인 애착의 안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olling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유형 척도(Adult Attachment Scale)는 박광배와 김정미(199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본인이 애착 대상을 필요로 할 때, 얼마나 반응적인지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의존 애착은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불안 애착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 관계에서의 불안을 반영하는 정도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친밀 애착은 타인의 접근과 친밀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로 6문항 구성되어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방식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각 유형 간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존애착 3번 문항과 불안애착 11번 문항, 친밀애착 18번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제외한 후 각 5문항 씩 총 15문항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는 Fischer와 Turner(1970)가 총 29문항으로 만든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eeking-Short Form; ATSPPH-SF)로 Fischer와 Farina(1995)가 다시 10문항으로 축소하였다. Collins와 Read(1990)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 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인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한 540부는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Window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애착유형과 전문도움추구태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했고, 평균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표 3-1 각 문항 간 신뢰도 값

구분		신뢰도 값	문항
애착유형	의존 5문항	.693	5문항(1*, 2*, 3, 4*, 5*)
	불안 5문항	.790	5문항(6*, 7, 8, 9, 10)
	친밀 5문항	.710	5문항(11, 12, 13, 14*, 15)
	전체	.801	
전문도움추구	긍정 5문항	.711	5문항(1, 3, 5, 6, 7)
	부정 5문항	.601	5문항(2, 4, 8, 9, 10)
	전체	.793	

* 역코딩 채점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 통계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국적은 한국대학생은 241명으로 전체 44.6%이며, 중국 대학생은 299명으로 55.4%로 나타났고, 성별은 한국대학생은 남자가 95명으로 17.6%, 여자가 146명 27.0%이며, 중국 남자는 113명으로 20.9%이고, 여자는 186명으로 34.4%이다.

표 4-1 국적에 따른 성별 기술 분석 결과

			국적		전체
			한국	중국	
성별	남자	빈도	95	113	208
		전체 %	17.6%	20.9%	38.5%
	여자	빈도	146	186	332
		전체 %	27.0%	34.4%	61.5%
	전체	빈도	241	299	540
		전체 %	44.6%	55.4%	100.0%

연구에 참여한 전체 540명에서 재학 중인 학년은 486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1학년 68명 14.0%, 2학년 68명 14.0%, 3학년 89명 18.3%, 4학년 194명 39.9%, 대학원생이 67명 13.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년은 4학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한국 215명으로 89.2%이며, 중국은 283명으로 94.6%로 나타났다.

표 4-2 국적에 따른 학년 및 재학여부 분석결과

			국적		전체
			한국	중국	
학년	1학년	빈도	49	19	68
		전체 %	9.1%	3.5%	12.6%
	2학년	빈도	45	23	68
		전체 %	8.3%	4.2%	12.6%
	3학년	빈도	53	36	89
		전체 %	9.8%	6.7%	16.5%
	4학년	빈도	51	143	194
		전체 %	9.4%	26.5%	35.9%
	대학원생	빈도	6	61	67
		전체 %	1.1%	11.3%	12.4%
	무응답	빈도	37	17	54
		전체 %	6.9	3.1	10.0
	전체	빈도	241	299	540
		전체 %	44.6%	55.4%	100.0%
재학여부	재학생	빈도	209	221	430
		전체 %	38.7%	40.9%	79.6%
	휴학생	빈도	10	0	10
		전체 %	1.9%	0.0%	1.9%
	대학원생	빈도	6	62	68
		전체 %	1.1%	11.5%	12.6%
	기타	빈도	16	16	32
		전체 %	3.0%	3.0%	5.9%
	전체	빈도	241	299	540
		전체 %	44.6%	55.4%	100.0%

본 연구에 참여한 연령은 한국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92세이며 최소연령은 18세이고 최대연령은 29세로 나타났고, 중국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2.10세이며 최소연령은 18세, 최고연령은 34세로 나타났다.

표 4-3 국적에 따른 평균 연령

국적	평균	N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한국	21.9208	240	2.52974	18.00	29.00
중국	22.1003	299	2.88190	18.00	34.00
합계	22.0204	539	2.72970	18.00	34.00

성별에 따른 평균연령은 남자는 22.67세이고 최소연령은 18세, 최대연령은 32세이며, 여자는 21.60세이고 최소연령 18세, 최대연령은 34세로 나타나 전체 평균연령은 22.02세로 나타났다.

표 4-4 국적에 따른 성별 연령

성별	평균	N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자	22.6779	208	2.69139	18.00	32.00
여자	21.6073	331	2.67590	18.00	34.00
합계	22.0204	539	2.72970	18.00	34.00

2. 상담에 관한 분석결과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은 11.9%, 중국 대학생은 11.1%가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540명 중 124명인 23.0%가 상담 경험이 있고, 416명 77.0%가 상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이나 중국 대학생 모두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미비한 것으로 예측된다.

표 4-5 국적에 따른 상담 경험 분석

			상담경험		전체
			있다	없다	
국적	한국	빈도	64	177	241
		전체 %	11.9%	32.8%	44.6%
	중국	빈도	60	239	299
		전체 %	11.1%	44.3%	55.4%
전체		빈도	124	416	540
		전체 %	23.0%	77.0%	100.0%

상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국적에 따른 성별을 보면 한국은 남자 24명 19.4%, 여자 40명 32.3%이고, 중국은 남자 18명 14.5%, 여자 42명 33.9%로 전체 여자 66.1%로 남자 33.9% 보다 상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 모두 여자가 전문상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상담경험 대학생의 국적과 성별 분석

(단위: 명)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국적	한국	24	40	64
		19.4%	32.3%	51.6%
	중국	18	42	60
		14.5%	33.9%	48.4%
전체		42	82	124
		33.9%	66.1%	100%

표 4-7 상담경험에 대한 경로

			국적		전체
			한국	중국	
상담 경로	자발적으로	빈도	44	35	79
		전체 %	35.5%	28.2%	63.7%
	(학교, 부모, 교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빈도	16	15	31
		전체 %	12.9%	12.1%	25.0%
	친구의 권유로	빈도	1	7	8
		전체 %	.8%	5.6%	6.5%
	기타	빈도	3	3	6
		전체 %	2.4%	2.4%	4.8%
	전체	빈도	64	60	124
		전체 %	51.6%	48.4%	100.0%

상담 받은 내용은 복수 응답으로 전체 214개로 나타났고, 한국 대학생들의 상담내용을 보면, 일과 공부에 대한 상담이 40명으로 32.3%로 가장 많고, 다음 순의 상담내용은 정서·감정문제로 16.1%, 대인관계 15.3%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들은 일과 공부문제가 38명으로 3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인관계 23.4%, 정서·감정문제가 12.1%로 나타나 두 나라의 대학생들은 유사한 문제로 상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 대학생은 자살욕구 때문에 상담경험이 있는 반면, 중국 대학생은 성문제에 대한 상담경험이 있는 나타나 일부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나라 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007$)

표 4-8 국적에 따른 상담내용의 복수응답 결과

			국적		합계
			한국	중국	
상담 내용	일/공부	총계	40	38	78
		전체 중 %	32.3%	30.6%	62.9%
	연애	총계	3	8	11
		전체 중 %	2.4%	6.5%	8.9%
	대인관계	총계	19	29	48
		전체 중 %	15.3%	23.4%	38.7%
	사회문제	총계	4	10	14
		전체 중 %	3.2%	8.1%	11.3%
	정서감정문제	총계	20	15	35
		전체 중 %	16.1%	12.1%	28.2%
	성문제	총계	0	4	4
		전체 중 %	0.0%	3.2%	3.2%
	건강과 질병	총계	1	6	7
		전체 중 %	.8%	4.8%	5.6%
	자녀문제	총계	0	2	2
		전체 중 %	0.0%	1.6%	1.6%
	신체정신질환	총계	1	4	5
		전체 중 %	.8%	3.2%	4.0%
	자살욕구	총계	2	0	2
		전체 중 %	1.6%	0.0%	1.6%
	기타	총계	7	1	8
		전체 중 %	5.6%	.8%	6.5%
합계		총계	64	60	124
		전체 중 %	51.6%	48.4%	100.0%

3. 국적에 따른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평균 분석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간의 평균 분석은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

착,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먼저 한국 대학생은 애착 불안은 3.47점, 불안 애착은 2.31점, 친밀 애착은 3.47점, 도움추구태도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은 의존 애착은 3.08점, 불안 애착은 2.67점, 친밀 애착은 3.67점, 전문 도움추구태도는 3.3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에 따른 평균 차이는 의존 애착, 불안 애착,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 애착은 국적 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국적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국적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9 국적에 따른 평균 분석 및 t-검정

국적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착	도움추구태도
한국	평균	3.4693	2.3145	3.4656	3.1560
	N	241	241	241	241
	표준편차	.67872	.74822	.65206	.35773
중국	평균	3.0769	2.6615	3.3686	3.3411
	N	299	299	299	299
	표준편차	.64991	.79137	.62150	.37758
합계	평균	3.2520	2.5067	3.4119	3.2585
	N	540	540	540	540
	표준편차	.69048	.79078	.63656	.37985
통계량	t	6.837	5.190	1.764	-5.798
	p	.000	.000	.078	.000

4.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평균 분석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평균 분석을 보면, 의존 애착은 남자 3.17점, 여자 3.30점이며, 불안 애착은 남자 2.59점, 여자 2.46점이고, 친밀 애착은 남자

3.42점, 여자 3.41점이며, 도움추구태도는 남자 3.23점, 여자 3.2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t-검정 결과는 의존 애착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성별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표 4-10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평균 및 t-검정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의존애착	남자	208	3.1700	.70931	t=-2.194 p=.029
	여자	332	3.3035	.67441	
불안애착	남자	208	2.5885	.73548	t=1.907 p=.057
	여자	332	2.4554	.82047	
친밀애착	남자	208	3.4202	.59253	t=.241 p=.810
	여자	332	3.4066	.66347	
도움추구 태도	남자	208	3.2279	.39070	t=-1.485 p=.138
	여자	332	3.2777	.37220	

5.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상담 경험 평균 및 t-검정

상담 경험이 있는 의존 애착은 3.12점, 없다는 3.29점이고, 상담 경험이 있는 불안 애착은 2.66점, 없다는 2.46점이며, 상담 경험이 있는 친밀 애착은 3.22점, 없다는 3.47점이고, 상담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도움추구태도는 3.33점, 없다는 3.2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에 따른 상담 경험의 t-검정은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착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추구태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 애착유형과 상담 경험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상담 경험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11 상담 경험에 따른 애착유형의 평균 및 t-검정

상담경험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의존애착	있다	124	3.1218	.78072	t=-2.404 p=.017
	없다	416	3.2909	.65725	
불안애착	있다	124	2.6629	.87582	t=2.519 p=0.12
	없다	416	2.4601	.75853	
친밀애착	있다	124	3.2226	.78573	t=-3.820 p=.000
	없다	416	3.4683	.57393	
도움추구 태도	있다	124	3.3258	.39424	t=2.256 p=.024
	없다	416	3.2385	.37360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인 애착유형은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착이며, 각 애착 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유형 중 의존 애착형의 t 값은 4,875($p=.000$), 불안 애착유형의 t 값은 -2.379($p=.018$), 친밀 애착형의 t 값은 2,460($p=.014$)으로 불안 애착유형과 친밀 애착유형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존애착유형과 친밀애착유형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불안 애착유형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애착유형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은 채택되었다.

표 4-12 애착유형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통계량
(상수)	2.872	.156		18.397	.000	$R^2 = .059$ $F = 11.137$ $p = .000$
의존애착	.135	.028	.227	4.875	.000	
불안애착	-.070	.029	-.127	-2.379	.018	
친밀애착	.061	.025	.127	2.460	.014	

$p < .05$

2.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각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분석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불안 애착유형 t 값은 2,056($p=.041$)이며 친밀 애착유형 t 값은 2,377($p=.018$)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중국 대학생은 애착유형에 따라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설 8을 채택했다.

표 4-13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각 애착유형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R ²
종속변 수: 도움추 구 태도	(상수)	2.617	.308		8.490	.000	.060
	한국 의존 애착	-.030	.042	-.057	-.709	.479	
	한국 불안 애착	.074	.036	.155	2.056	<u>.041</u>	
	한국 친밀 애착	.094	.040	.172	2.377	<u>.018</u>	
	중국 의존 애착	.064	.044	.118	1.453	.148	
	중국 불안 애착	-.022	.036	-.049	-.619	.537	
	중국 친밀 애착	.002	.040	.004	.052	.958	

[표 4-14]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불안애착유형 간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각각 애착유형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때 한국 대학생의 불안애착 유형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불안애착유형만 분석했을 경우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25$).

표 4-1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불안애착유형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통계량
(상수)	3.145	.105		30.022	.000	R ² =.031 F=3.755 p=.025
한국 불안애착	.066	.031	.137	2.141	.033	
중국 불안애착	-.053	.029	-.117	-1.831	.068	

a. 종속변수: 도움추구태도종합

[표 4-15]를 보면,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친밀애착유형 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각각 애착유형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때 한국 대학생의 친밀애착 유형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밀애착 유형만 분석했을 경우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p=.360).

표 4-15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친밀애착유형 간 다중회귀분석

변수	B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통계량
(상수)	2.933	.172		17.076	.000	R ² =.009 F=1.025 p=.360
한국 친밀애착	.047	.035	.086	1.332	.184	
중국 친밀애착	.018	.036	.032	.494	.622	

a. 종속변수: 도움추구태도종합

3. 상담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 회귀분석

상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적별 애착유형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보면, 의존 애착은 국적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애착, 친밀 애착은 국적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

별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경험자는 애착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도움추구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표 4-16 상담경험자 중심의 국적과 애착유형의 t-검정

국적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의존애착	한국	64	3.7063	2.60572	t=2.568 p=.011
	중국	60	2.8133	.70048	
불안애착	한국	64	2.6906	2.41317	t=-.820 p=.414
	중국	60	2.9600	.83467	
친밀애착	한국	64	3.2781	.73603	t=.812 p=.418
	중국	60	3.1633	.83767	
도움추구 태도	한국	64	3.2172	.35212	t=-3.293 p=.001
	중국	60	3.4417	.40643	

상담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애착유형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회귀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6). 가설 9. 상담경험자를 중심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되었다.

표 4-17 상담경험자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계수^a

	B	표준오차	β	t	유의 확률	통계량
(상수)	2.998	.170		17.669	.000	R ² =.059 F=3.577 p=.016
의존애착	-.039	.018	-.194	-2.142	.034	
불안애착	.009	.019	.041	.457	.649	
친밀애착	.133	.046	.266	2.901	.004	

a. 종속변수: 도움추구태도

4. 상담경험 조절효과분석

애착유형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상담경험이 조절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의존 애착유형, 불안 애착유형, 친밀 애착유형이고 종속변수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조절변수는 상담경험이다.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개입한 상담경험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애착유형인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착은 각 모형 1, 모형 2, 모형 3으로 갈수록 R제곱 변화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담 경험의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 4-18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 간의 영향 관계 조절효과

변수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의존	1	.065 ^a	.004	.000	.35664	.004	1.002	1	236	.318
	2	.125 ^b	.016	.007	.35535	.011	2.710	1	235	.101
	3	.127 ^c	.016	.004	.35600	.001	.149	1	234	.700
불안	1	.130 ^a	.017	.013	.35615	.017	4.115	1	238	.044
	2	.162 ^b	.026	.018	.35523	.009	2.240	1	237	.136
	3	.163 ^c	.026	.014	.35594	.000	.052	1	236	.820
친밀	1	.087 ^a	.008	.003	.35713	.008	1.811	1	239	.180
	2	.148 ^b	.022	.014	.35528	.014	3.496	1	238	.063
	3	.148 ^c	.022	.010	.35603	.000	.005	1	237	.941

주: 모형1은 각 의존, 불안, 친밀변수

모형2는 상담경험 변수

모형3은 모형1과 모형2의 상호작용(모형1X모형2) 값임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개입한 상담경험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는 애착 유형인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애착은 각 모형 1, 모형 2, 모형 3으로 갈수록 R제곱 변화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상담경험이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4-19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 간의 영향 관계 조절효과

변수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의존	1	.191 ^a	.037	.033	.36972	.037	11.277	1	297	.001
	2	.200 ^b	.040	.033	.36971	.003	1.019	1	296	.314
	3	.201 ^c	.040	.031	.37022	.001	.188	1	295	.665
불안	1	.102 ^a	.010	.007	.37471	.010	3.122	1	297	.078
	2	.128 ^b	.016	.010	.37421	.006	1.798	1	296	.181
	3	.130 ^c	.017	.007	.37472	.001	.185	1	295	.668
친밀	1	.054 ^a	.003	.000	.37613	.003	.865	1	297	.353
	2	.103 ^b	.011	.004	.37531	.008	2.290	1	296	.131
	3	.108 ^c	.012	.002	.37575	.001	.319	1	295	.572

따라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영향 관계에 있는 상담경험은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0을 모두 기각했다. 즉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때 상담 경험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유형에 따라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가설 총 12개 중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조절효과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제외하면 9개 가설 중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4-20 가설 채택 여부

번호	내 용	채택 여부
가설 1	국적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국적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성별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X
가설 5	애착유형과 상담 경험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6	상담 경험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X
가설 7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8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각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 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9	상담경험자를 중심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
가설 10.1	의존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 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X
가설 10.2	불안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 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X
가설 10.3	친밀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 경험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X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추구태도 비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차이가 있고 또한, 상담심리에 대한 인식은 양국의 발전 시대와 달리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국가든 민간이든 인증할 수 있는 상담심리 자격증이 거의 없다. 다만 21세기 초기 중국의 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물질적 부유를 충족시키면서 정신적 부유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 상담심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 두 나라 간의 대학생들이 심리·정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다를 것이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태도는 어린 시절 만들어진 애착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애착에 따라 만들어진 내적작동모델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애착유형에 따라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41명 한국 대학생들과 299명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에 따라 심리·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차이와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 경험은 한국 대학생 11.9%, 중국 대학생 11.1% 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적 상담 경험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상담을 받게 된 태도(경로)는 한국은 35.5%가 자발적으로 받는 반면, 중국은 28.2%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

하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은 한국과 중국 모두 2위로 나타나 향후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적에 따라 상담내용을 보면 한국(32.3%)과 중국(30.6%)은 일·공부 문제가 가장 많고, 한국은 정서·감정문제(16.1%), 대인관계(15.3%)순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대인관계(23.4%), 정서·감정문제(12.1%)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자살문제(1.6%)로 도움을 추구하지만, 성문제로 상담을 하지 않고, 중국은 성문제(3.2%)로 도움을 추구하지만 자살문제로는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상담심리에 대한 태도가 양국의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섯 번째는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은 차이가 있지만,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는 애착유형과 상담 경험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담 경험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 경험보다는 애착유형이 도움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 번째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각각 애착유형이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 상담 경험이 조절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에 상담 경험이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 간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차이가 있으며, 상담 경험보다는 애착유형에 따라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심리·정서문제에 있어 본인의 애착유형에 따라 도움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4-15]에 나타난 것처럼 양국 모두 친밀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데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상담 경험에 대해 친밀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한국은 평균 3.22점, 중국은 3.47점으로 의존 애착과 불안 애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의존 애착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애착유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도움추구태도 비교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의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 인식에 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관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국은 지역적 경계 없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경에 소재한 대학생으로 한정하면 지역적 범위의 동일성으로 비교의 신뢰성이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은 최근 대부분의 대학교에 학생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대학교의 상담센터를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학교에 최근 본 대학 학생들을 위한 상담기관 설치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대학생들에게 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한다면 두 나라 간의 상담태도에 대해 조금 더 신뢰할만한 연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나,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훈구 (2013). 대학학생상담센터의 위기관리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사회적 지지 및 상담에 대한 신뢰가 상담 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성인애착유형 조합에 따른 이성교제행동과 이성관계 만족간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훈 · 정정운 (1992). 대학학생생활연구소의 발전방안, 한국대학상담학회 동계학술대회. 1-17.
- 김옥진, 김홍순 (2006). 심리검사 개관. 현대인의 행동과 심리, 민지사.
- 김옥진, 김홍순 (2006). 심리검사 개관. 현대인의 행동과 심리, 민지사.
- 김인규 (2002). 상담전 교육 영상자료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미, 유성정 (2002).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4),991-1002.
- 김태길 (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현대 한국과 가치관의 문제. 서울: 문음사.
- 나희영 (2017). 가족관계위기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은폐와 체면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조현주 (2007). 한국 대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생각. 청소년상담연구
- 박선주 (2010). 회피애착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의 관계: 자기개방, 위협/이득 예측을 매개로.
- 박아청 (2000). 2000년대의 대학의 변화와 학생생활연구의 역할.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협의회 제28차 학술대회. 대전.

- 박인숙 (2017).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마음 챙김과 영성의 매기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 아 (2014).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심리적 불편감, 상담에 대한 지식 및 한국인 상담사에 대한 신뢰가 중국인 유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안하얀 (2009).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기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대희 (2010).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추구행동과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지지,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로.
- 유성경 (1998). 우울의 표현 및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간의 비교. 청소년 상담 연구, 6, 93-114.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55-68.
- 유영란 (2005).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민봉, 심형인 (2013). 공기업, 사기업 구성원의 체면의식과 체면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 이건영 (2018). 학생-교사 애착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조절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언 (2003). 기업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당위관과 직무성과의 관계,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3(3), 330-338.
- 이정훈 (2002).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 연구, 26(2), 183-195.
- 이지형 (2012).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향유 신념과 중독성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 (2004).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의 우울증표현 및 상담태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운정 (2016).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응연, 이필호 (1981). 대학 학생지도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23.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2. 국외문헌

金耀基 (1980). 人际关系中人情之分析, 中国人的心理, 桂冠图书公司, 75-104.

金耀基 (1988). "面"、"耻"与中国人行为之分析, 中国社会科学 评论,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罗 锋 (1998). 韩国文化与现代政治转型, 东北亚研究, 3.

李鸿義, 李坚评 (2001). 大学生心理健康教育与心理咨询研究. 高校心理咨询本土化的文化思考. 21-25. 中国北京: 北京航空航天大学出版社

费孝通, 刘豪兴 (1985). 乡土中国[M]. 生活·讀書·新知三联书店.

杨国枢 (2003). 中国人的心理与行为: 本土化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99-100.

周美伶, 何友晖 (2005). 从跨文化的观点分析面子的内涵及其在社会交往中的运作,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86-216.

朱颖婷 (2014). 中外高校心理咨询比较研究, 华南理工大学, 硕士论文.

中国教育报 (2001.9.7.). 中国教育报. 中国北京: 中国教育报

黄光国 (1987). 人情与面子中国人的权力游戏, 儒家关系主义 北京大学出版社, 3-30.

黄光国 (1987). 人情与面子中国人的权力游戏, 儒家关系主义 北京大学出版社, 3-30.

Ainsworth, M.D.S. (196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interaction

- among the Ganda. In B.M.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Vol.2). New York: Wiley.
- Ainsworth, M.D.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rthoi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n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Work Group on Nicotine Dependence(196).
- Ainsworth, M.D.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mato, P.R., & Bradshaw, R. (1985). An exploratory study of people's reasons for delaying or avoiding help-seeking. *Australian Psychologist*, 20. 21–31.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stice Hall.
- Bartholomew, K., & Horowitz, L.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rman, W.H., Marcus, L. & Berman, E.R. (1994). Attachment in marital relations. In M.B.Sperling & W.H., Berman(Ed), *Attachment in adu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ond, M.H., (1987), Chinese Value and the Search for Culture-free Dimensions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2), 143–16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1. Separation, anxiety, and*

-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A., Clark, C., Shaver, P.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A.Simpson. & W.S.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Bretherton, & E.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0, pp. 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 In M.T.Greenberg, D.Cicchetti, & E.M.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49.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Collins.N. & Read.S.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amer, K.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Crammer, K.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David J. Wallin (2011).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Deane, F.P., & Chamberlain, K. (1994). Treatment fearfulness and distress as predictor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seek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22, 207–217.
- Egeland, B. & Farber, E.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geland, B., Jacobvitz, D., & Sroufe, L.A.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relationship predictions. *Child Development* 59, 1080–1088.
- Feeney, J.A., & Noller, P., & Callan, V.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K Bartholomew & D.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269–308). London: Jessica Kingsley.
- Fischer, E.H., & Farina, A. (1995).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4), 368–373.
- Fischer, E.H., & Turner, J.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Fiske, S.T., & Taylor, S.E.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Fonagy, P., Gergeley, G., Jurist, E.J., & Target, M.L.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Fraley, R.C. & Waller, N.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A.Simpson & W.S.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Goodman, S.H., Sewell, D.R., Jampol, R.C. (1984). On going to the counselor: Contributions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s to the decision to seek psychologic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06–313.
- Gourash.N. (1978). Help-see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Community Psychology*, 6, 413–423.
- Gross, A.E., & Mc Mullen, P.A. (1982). Models of helps-seeking process. In B.M.Depaulo, A.Nadler, & J.D.Fischer(Eds.).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mans, K.E., & Grossman, K. (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C.M.Parkes, J.Stevenson-Hinde, and J.Ma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93–11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leitman, H., Fridlund, A.J., & Reisberg, D. (1999). *Psychology*. Norton, New York.
- Hamilton, C.E. (1995).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3), 690–694.
- Hazan, C.,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nson, J.A., & Swanson, J.L. (1993). Willingness to seek help as a function of self-disclosure and problem seve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446–470.
- Holt, L.J. (2014). Attitudes about help-seeking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academic adjust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5(4), 418–423.
- Kelly, A.E., & Achter, J.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obak, R.R., & Sreer,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miya, N., Good.G.E., & Sherrod, N.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Kirkpatrick, L.A., & Davis, K.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ushner, M.G., & Sher, K.J. (1989). Fears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service avoid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 251–257.
- Lankler, J.S. (200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relationship themes: Is there an empirical lin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delphi University.
- Liao Junfeng (2014). Impulsive Buying Under the Differentiat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Value A Dissertation Submitted for

-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 Lin, Y. (2002).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conceptions of counseling.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1, 199–211.
- Lopez, F.G., Melendez, M.C., Saucer, E.M., Berger, E., & Wyssmann, J. (1998) Internal working models, self-reported problems, and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79–83.
- Lopez, F.G., & Brennan, K.A. (2000). Dynamic pre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d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1.
- Leaf, P.J., & Bruce, M.L. (1987).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mental-health related services: A re-examin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17–138.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Bretherton & E.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6.
- Main, M., Goldwyn, R. (1985).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scoring manua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59

Research. 10, 239–266.

- Marrone, Mario (2005). Attachment and interaction. 78.
- Mechanic, D. (1975). Sociocultural and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personal responses of psychological disord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6, 393–405.
- Mikulincer, M., & Shaver, P.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Mikulincer, M. (1995). Appraisal of coping with real life stressful situation: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406–414.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Phillips, D.L. (1963). Rejection: A possible consequence of seeking help for mental disord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63–972.
- Pietromonaco, P.R., & Baret, L.F.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s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55–157.
- Pipes, R.B., Schwarz, R., & Crouch, P. (1985). Measuring client fea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933–934.
- Ralston, D.A., Holt, D.H., Terpstra, R.H. & Yu, K.C. (1997). The impact of national culture and economic ideology on managerial work values: A study of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and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8: 177–208.
- Rickwood, D.J., & Braithwaite, V.A. (1994).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 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9, 563–572.

- Robbins J.M., & Greenley, J.R. (1983). Thinking about what's wrong: Attributions of severity, cause, and duration in the problem definition stage of psychiatric help-seeking.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3, 209–232.
- Sarason, I.G., Pierce, G.R., & Sarason, B.R. (1990) Social support and interactional processes: A triadic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495–506.
- Shaver, P.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roufe, L.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Tessler, C.R., & Schwartz, S.H. (1972). Help Seek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18–326.
- Thompson, R.A., Lamb, M.E., & Estes, D. (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 144–148.
- Verdoff, J.B. (1981). The dynamic of help-seeking in men and women: A national survey study. *Psychiatry*, 44, 189–200.
- Van IJzendoorn, M.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ogel, D., & Wester, S.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Vogel, D.L., Wade, N.G., Wester, S.R., Larson, L., & Hackler, A.H. (2007). Seeking Help for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The influence of one's social network.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3), 233–245.
- Wang Baoguo. (2011.) Research on the Impact of Chinese Cultural Factors on Knowledge Sharing and Employee Creativity.
- Wu Pantong, Liu Haijian. (2005). 韩国企业文化及其特征评介. *Foreign Economies & Management*, 1(27).
- Ying, Y., & Miler, L.S. (1992). Help-seeking and attitude of Chinese Americans regarding psychologic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549–556.

부록

한 국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 문항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서와 태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진실 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답하기 어려우실 상황, 지금 가장 가까운 한 개의 문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답변한 결과는 연구 자료로 사용되며 답변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진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5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I.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들을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v) 또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남 (), 여 ()
3. 국적: 한국 (), 중국 (), 중국 조선족 ()
4. 학년: 재학생 ()학년, 휴학생 ()학년, 대학원생 (), 기타()

II. 다음은 상담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이전 혹은 현재에 학교 또는 일반 상담 기관에서 상담 경험 여부입니다.

- ① 상담 받은 경험이 있다 () ② 상담 받은 경험이 없다 ()-->
8번으로

☞ 6, 7번 문항은 위의 5번에서 ‘개인 상담 경험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6. 상담을 받은 경험은 어떤 경유로 받았습니까?

- ① 자발적으로() ② (학교, 부모, 교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
③ 친구의 권유로() ④ 기타()

7.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

- ① 일/공부 ② 연애 ③ 대인관계 ④ 사회문제 ⑤ 정서·감정 문제 ⑥ 성문제
⑦ 건강과 질병 ⑧ 자녀문제 ⑨ 신체·정신 질환 ⑩ 자살 ⑪ 기타()

8. 상담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상담받을 일이 없어서 ② 상담 기관을 신뢰하지 않아서 ③ 상담 기관을 잘 몰라서 ④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 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서 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⑥ 기타()

III. 다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도움’에 대한 의견

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지금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v)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자는 상담전문기관에 속한 사람으로, 상담심리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문 항	질 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만약 정신적으로 붕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1	2	3	4	5
2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1	2	3	4	5
3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1	2	3	4	5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 만하다.	1	2	3	4	5
5	만약 내가 오랜 기간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받는다면 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1	2	3	4	5
6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 받기를 원할 것이다.	1	2	3	4	5
7	정서적인 문제(예: 우울, 불안, 분노 등)를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8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9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1	2	3	4	5
10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IV. 각 문항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의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질 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다.	1	2	3	4	5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1	2	3	4	5
3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타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1	2	3	4	5
6	나는 버림받을 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7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1	2	3	4	5
8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나는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1	2	3	4	5
10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1	2	3	4	5
11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1	2	3	4	5
12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4	누군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1	2	3	4	5
15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중 국 설 문 지

您好！非常感谢您抽出宝贵时间回答此问卷。

此问卷是以研究中国大学生求助心理咨询态度为目的。您的回答是否真实将对本研究的客观性起到非常重要的作用。回答此问卷大概需要6分钟，回答的结果只作为研究资料使用， 绝不用于其它用途。我本人向您保证，您提供的资料将得到严格保密。因此诚恳地希望您真实答案，并请一定不要漏项。此问卷没有对错，尽可能速读问卷，并在最表现自己意见的栏里画“√”。身在异国他乡，学习和研究中的困难自然是可以想象的。作为同胞，恳 请您给予帮助和配合， 并真实地回答所有问题。

最后，向您致以来自异国的谢意！

2019年5月

韩国汉城大学心理学系 研究生

I. 下面的问题是关于你们日常生活的问题。请在恰当选项的后边画（✓） 希望您不要遗漏任何一个选项。

1. 年龄： 满（ ）
2. 性别： 男（ ） 女（ ）
3. 国籍：韩国（ ） 中国（ ） 中国朝鲜族（ ）
4. 学年：（ ） 所在学校（ ） 研究生（ ） 其他（ ）

II. 下面的问题是和心理咨询相关的问题

5. 现在或者以前在学校咨询中心或者一般咨询机关接受过心理咨询
1) 有过（ ） 请从第 6题开始作答， 2) 没有（ ） 请直接回答第→8题
6. 有过心理咨询的原因？可多选（ ）
1) 自发来的 2) 「学校，父母，教师的劝说」没有意识的去咨询
3) 由于朋友的推荐 4) 其他（ ）
7. 是因为什么来到咨询室的？可多选（ ）
1) 工作、学习 2) 恋爱 3) 人际关系 4) 社会问题 5) 感情问题
6) 子女问题 7) 健康和疾病 8) 性问题 9) 精神疾病 10) 自杀 11) 其他
8. 没有过咨询经历的原因是什么？可多选（ ）
1) 没有什么事情需要心理咨询 2) 不信任咨询机构 3) 对咨询机构不了解
4) 由于经济原因，没能去咨询 5) 认为大部分问题自己都可以解决 6) 其他

Ⅲ.下面的问题是关于对咨询的态度，没有对错。请各位选择与自己的态度最相似的选项。

	问 题	很 不 同 意	同 意	一 般	同 意	非 常 同 意
1	如果觉得自己精神崩溃了，我首先会寻求专业的帮助。	1	2	3	4	5
2	和咨询师商量自己在情绪上的问题,不是好办法。	1	2	3	4	5
3	如果我现在正经历着严重的情绪危机的话， 我会通过咨询来求稳定	1	2	3	4	5
4	不受专业帮助， 靠自己克服自身的矛盾或恐惧的人的态度值得尊敬。	1	2	3	4	5
5	如果我长时间处于不安和焦虑之中， 我会寻求咨询等专业帮助。	1	2	3	4	5
6	将来有一天，我出现心理问题，我愿意接受咨询。	1	2	3	4	5
7	有情绪问题（例如抑郁,不安,愤怒等）的人很难独自解决该问题， 只有得到专业帮助才能解决问题。	1	2	3	4	5
8	我会怀疑咨询价格是否和咨询的价值相匹配。	1	2	3	4	5
9	自己的问题需要自己解决，接受咨询是最后的手段。	1	2	3	4	5
10	和其他困难一样,情绪上的困难也有自行解决的倾向。	1	2	3	4	5

IV.此问卷是看您的态度，答案没有对错。请各位选择与自己的态度最相似的选项。我本人向您保证，您提供的资料将得到严格保密。

	问 题	非常 不 认 同	不 认 同	一 般	认 同	非常 认 同
1	我难以容忍我依赖别人。	1	2	3	4	5
2	每当我需要别人的时候,别人都不会靠近我。	1	2	3	4	5
3	在我需要的时候,总有人会在我身边。	1	2	3	4	5
4	我觉得我不能完全相信他人。	1	2	3	4	5
5	在我需要的时候, 即使人们离得很近,我仍无法确定我能依靠。	1	2	3	4	5
6	我几乎不会担心被别人抛弃。	1	2	3	4	5
7	我常常觉得我的朋友/ 爱人/ 家人似乎不是真正爱我。	1	2	3	4	5
8	别人似乎不会像我所希望的那样亲近我。	1	2	3	4	5
9	我常常担心我的朋友/ 爱人/ 家人可能不愿意和我在一起。	1	2	3	4	5
10	我与对方融为一体的欲望会让人远离我。	1	2	3	4	5
11	我觉得我比较容易让人亲近。	1	2	3	4	5
12	我不会担心有人要靠近我。	1	2	3	4	5
13	和别人的亲近多少会让我觉得不舒服。	1	2	3	4	5
14	如果有人想离我太近,我就会感到不舒服。	1	2	3	4	5
15	如果有人想依靠我,我就会觉得很舒服。	1	2	3	4	5

ABSTRACT

Comparison of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towards Professional Assistance based on Attachment type

Shao, Bing-Jie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ttachment type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this study compares the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In this study, 241 Korean and 299 Chinese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According to the attachment style, the differences in the attitude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for solv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experience on the attitude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were studied.

Final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have experience in psychological counseling, accounting for 11.9% and 11.1% respectively.

Second as for the attitude (approach) of accepting counseling, 35.5% of Korean college students take the initiative to accept counseling, while 28.2% of Chinese college students take the initiative to accept counseling, so it can be predicted that Korean college students are more active in seeking professional help. However, both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have the problem of a non-active attitude (approach) to counseling. It can be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n important change trend in their attitude towards counseling in the future. That is to say, when there ar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it needs some social understanding to find professional consultants.

Third according to different nationa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unseling content, South Korea (32.3%) and China (30.6%) have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seeking psychological counseling due to work and learning problems, followed by South Korea's emotional problems (16.1%), interpersonal problems (15.3%), while China's interpersonal problems (23.4%), emotional problems (12.1%). In particular, there are suicidal problems (1.6%) in Korean universities to seek help, but not sexual problems. On the contrary, Chinese students seek help because of sexual problems (3.2%), not suicide, which can be explained as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there are differences in attachment typ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so there are differences in their attitude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It is explain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ulture and attitude towards psychological counsel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Fifth the attachment types of different genders are different,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attitude of pursuing professional assistance.

Sixth attachment type is related to consulting experience, but consulting experience has no effect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 help.

That is to say, if there ar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attachment type can affect seeking help more than consulting experience.

Seventh the attachment type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have an impact on their attitude of seeking help.

Eighth in predi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ypes and help seeking attitude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consulting experience will play a moderating role. But the results show that the attitude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has no moderating effect on consulting experience.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ttitude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Compared with consulting experience, they are more inclined to seek professional help according to attachment type. That is, in man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encountered in life, when choosing help according to their attachment typ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However, as shown in table 4-15, both countries have the same attitude in the pursuit of professional help. The average score of those who form "close attachment" to consulting experience is 3.22 in Korea, while the average score of China is 3.47. Although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m, we can see that attachment type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both South Korea and China.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ompare the attitude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according to the attachment type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Key word: attachment, attachment type, psychological counseling, consulting experience, professional help attitude.